

맨 처음 공간인식, 책상

The desk, my first awareness of space

글. 조정만 Cho, Jeongman · KIRA |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나는 어려서 골목에 나가 뛰어놀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집에 오면 골목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숙제는 저녁밥을 먹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놀았다. 부모님의 성화가 왜 없었겠는가. 당연히 야단과 타박으로 점철된 초교시절이었다. 당시 나의 목표는 반에서 60명 중 10등 내외로 할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각종 놀이, 축구, 야구 등을 하는 것으로 맘속에 정해 놓고 하루를 보냈다. 일요일이면 어머니께 떼를 써서 용돈을 받아내면 만화가게에 가서 종일 만화를 봤다. 당시 소년중앙, 어깨동무 등과 무협지 그리고 유명한 책 들이 만화가게에 있었으므로 나름 책을 통한 정보는 매주 게으르지 않고 습득했다.

사실 집에서 숙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내 책상이 없어서 숙제를 하려면 접이 밥상 또는 얇은뱅이 소반상에 앉아서 숙제를 해야 하는 점이었다. 잘 뛰어 놀아서인지 허벅지와 종아리가 튼실한 탓에 나는 상 앞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게 공부 태만의 가장 큰 핑계거리였다.

그러나 그 점이 우리 부모님께 통할리 만무했다. 나는 초교시절 내내 변함없이 공부하라는 부모님 노래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러던 어느 초교 말년 시절이었다. 당시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시행하면서 한 반을 향상반과 우등반을 그리고 나머지 학습반으로 나누어서 실적



을 올리려는 선생님의 평가르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 분개했지만 표출 방법을 모르니 도리없이 내 성적에 따라 향상반으로 분리되어 방과 후 공부를 해야만 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공부 혜택을 받게 되는 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었다. 공부하기 싫은 나는 그래도 진학을 위한 학습은 해야했기에 당연히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익혀야 했다. 그 와중에 나는 한가지 놀라운 점을 은밀히 알게 됐다.

우등반에 있던 친구들이 선생님이 빌려준 교재를 갖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던 것이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지나간 척하다가 어깨너머로 슬쩍 보았다. 그런데 지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 교재에 고스란히 토씨 하나 안 틀린 채 있었다. 아니, 그 교재에서 지난 시험문제가 나오다니. 여태 시험문제는 저기서 다 나왔단 말인가. 나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기가 막혔다. 충격일 먹은 순간 나는 만화를 보면서 익힌 속력으로 거의 한 페이지를 훑어 봤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거듭 확인을 한 뒤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나에게 우등반은 필요없다. 저런 식의 학습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만화가게에서 쌓아 놓은 지식으로라도 알아 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학습교재 보다는 폭 넓은



지식의 책,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로 생각의 방향을 잡고 초교시절을 마쳤다.

이윽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 집을 신축하게 됐다. 우리 부모님께서 새 집을 지으신 거다. 나는 기왕 의무교육이 시작됐으니 이제부터 맘 다잡고 다부지게 학습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목수일을 맡았던 작은 매형이 책상이 없던 내게 집 준공 선물로 책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매형에게 서랍이 있는 입식 책상을 나름대로 제도해서 부탁했다. 당연히 제도니까 치수도 기입하고... 이제 나도 책상에 의자 놓고 앉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마음 먹었던 것이다. 집이 완공되서 잔치를 벌이고 새 집에 입주했는데 매형은 아직도 책상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떼를 썼다. 매형은 집이 완공됐으니 얼른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급했던 상황이었다. 내가 준 도면은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잃어 버린 채 대충 눈 짐작으로 베니어 합판으로 재단하고 각목을 지지하여 망치로 대충 툭 툭 치더니 “옛다, 책상”하고 내게 주었다. 나는 그 책상을 보고서 화가 폭발쳐 엉엉 울었다. 매형이 숨씨 좋은 목수라고 해서 내가 어린 손이지만 꼼꼼이 제

도하여 도면도 드렸건만, 고작 얇은뱅이 상을 책상이라고 내놓냐고 집이 떠들썩하게 길길이 날뛰며 악을 써댔다. 어머니는 나를 말리시며 “여보게 사위, 책상 다리라도 좀 길게 해주게. 자가 얇은뱅이 책상에서는 좀이 쑤셔서 책이 안 읽힌다고 하니 자네가 힘 좀 더 써주소. 얼릉 다시 각목으로라도 덧대고 책상을 올려주시게”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머쓱한 매형은 책상의 키를 각목으로 키워줬다. 그리곤 내 머리를 쓰다듬고 미안하다고 하며 연장을 챙겨서 동료들과 서울행 기차에 도망가듯 몸을 싣고 떠났다. 눈물을 훔치고 의자를 동네에서 빌려다가 앉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나중에 어머니는 장에 가서 새 의자를 사다가 바꿔 주셨다. 나는 영 개운치 않아 어머니께 덧댄 각목 다리가 보기 안좋으니 책상 보로 덮어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웬만한 우리 가족 옷을 손수 지어주셨던 어머니는 녹색 다우다 천을 시장에서 끊어다 끝단을 재봉질하고 책상을 덮어 주셨다. 그리고 책상용 독서등도 선물해 주셨다.

새 집에 내 방이 생긴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책상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멋진 학습공간이 되었다. 거기서 나는 녹색 책상보 물결 속에서, 그리고 책의 강물에서 맘껏 헤엄치고 물장구치는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그곳은 부모님과 형들, 누나들의 지원에 힘입어 고교진학과 대학진학을 위한 학습,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수많은 책 읽기를 실행했던, 그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된 것이다.